

# “호남신당으로 안돼” 손학규 제동...제3지대 통합논의 ‘진통’

### 손학규 “지역주의 안돼...미래세대 통합 위해 내가 대표 역할”

### 박주선 “손 대표 체제 통합당 대표 선거 치르고 하진 않을 것”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제3지대’ 통합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각 당의 통합추진위원장 역할을 맡은 박주선 바른미래당·유성열 대안신당·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오는 17일까지 조건없는 통합을 이뤄내기로 합의했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당 통합이 호남신당이 되진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복병을 만났다.

손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에 다친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타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게 됐지만 결코 정치 연합집단이나 공화적인 연합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 대신 미래세대가 주체가 되는 신당이 되어야 한다는 게 손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실제 당 안팎의 많은 동지들이 지역정당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역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면 통합

을 안하는 것이 낫고, 절대로 해선 안된다는 주장을 강력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며 “미래세대가 주체가 돼 낮은 정치구조를 개혁하는 구도를 만들지 못하면 제3지대 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정치적 사명,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구조 개혁을 위해 저의 신념을 바치겠다”며 “지역이 아닌 세대교체 통합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다. 미래세대가 우리 정치의 주역이 되

도록 그들에게 이번 총선의 주도권을 넘겨줄 때 당 대표로서 저의 역할은 거기까지다”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쏟아지는 당 대표 사퇴 요구에도 이 같은 ‘미래세대와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특히 3당 통합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도로 호남당’이라는 비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청년 중심의 미래세대와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손 대표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통합추진위원장 역할을 맡은 박주선 의원은 손 대표와 만나 3당 통합 및 손 대표 거취를 논의했다.

박주선 의원은 손 대표를 만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표께서 3당 통합을 하는데 왜 내가 사퇴해야 하냐고 하신 것은 협상 차원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협의를 해주면 아주 신속적이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하셨다”며 “손 대표가 고집해서 손 대표 체제로 통합당 대표 선거를 치르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안(案)이 셋이 있다. 3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통합을 주도할지, 통합 당시에 대표를 사임하고 새얼굴을 대표로 모실지, 아니면 외부인사를 영입해 단일대표체제로 할지 논의 중”이라며 “특이사항은 2단계 통합(3당 통합 후 청년 등 정치 세력통합)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시간적 한계가 일

주일이다. 3당이 통합한 경우 대표직을 유지해도 일주일”이라고 전했다.

박주선 의원은 이어 3당 통합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른당은 공천심사하고 발표하는데 통합이 지리멸렬하고 이 유입이 지체되면 통합 결과에 감동도 없고 의미도 부여받을 수 없다”며 “그래서 빨리 (통합을) 하자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통합추진위원장인 박주현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손 대표가 그렇게 말해도 통합은 될 것”이라며 “모든 사안에 대해 우리는 가닥을 잡았고, 2월 28일 이후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는 데 다 합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대통령 “코로나 불안 떨치고 일상 경제활동 해줘야”

### 남대문시장 상인들 격려 “전통시장 타격 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에서 관광해설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위축 우려가 커지는 것을 감안한 현장방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축 우려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지원보다도 국민들이 하루빨리 너무 과도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다시 일상활동,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대문시장을 방문한 뒤 시장상인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전통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통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한 뒤 “정부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광업체 분들의 어려움을 금융지원이나 재정지원, 마케팅지원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는)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긴장해야 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것은 정부가 해야 할 몫이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할 역할”이라며 “국민들은 방역본부가 가르쳐주는 행동수칙이나 행동요령을 따르면서 충분히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시장 방문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된 이후 지난 9일 중국 우한 교민 격리시설이 있는 충북 진천, 충남 아산을 방문했을 때 온양온천 전통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신종 코로나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소비 진작을 이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그는 “감염상황만 보더라도 2~3차 감염이 발생은 했지만, 전부 확진자하고 가족관계이거나 거의 가족과 비슷하게 밀접한 접촉을 했던 분들만 감염이 됐지, 그냥 쓰내기로 어떻게 스쳐지나간 정도로 감염된 분은 한분도 없다”면서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간 공포는 있다 하더라도 소독만 한다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지나치게 위축이 돼서 이렇게 전통시장을 기피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생활이나 민생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빨리 활발하게 다시 활동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홍준표, 양산에서 김두관과 ‘빅매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향 출마’를 접고 경남 양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대표는 그동안 한국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의 ‘수도권 합치 출마’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밀양(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다가 전남 양산을 등 경남 합치’ 출마는 수용할 수 있다

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홍 전 대표는 12일 뉴스1과 통화에서 “어제 김형오 공천위원장과 통화했다. 김 위원장이 이해를 풀셨을 것”이라며 경남 양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은 현역 민주당 의원(서형



홍준표 김두관 수)이 있는 곳으로, 현재 경남도지사 지낸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이 출마를 선언한 만큼 또 하나의 ‘빅매치’가 성사된 것이다.

## 안철수 “무당층·중도층 유권자 ‘국민당’ 바라본다 생각”

### 국민당, 창당 작업 본격 돌입...23일 중앙당 창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2일 “30% 이상의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 유권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빠른 속도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창당을) 실행

에 옮기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위원장은 “총선이 다가오면 무당층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기득권 양당에 실망한 유권자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더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당은 16일 경기도당, 서울시당, 대전시당,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창당작업에 돌입한다. 이후 대구시당, 인천시당 창당대회를 거쳐 2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진행한다.

다만 당 색깔을 놓고 민중당과의 갈등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중당은 3년째 사용해오던 당색을 국민당이 양해도 없이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야 할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